

생활 속의 디지털 기술

## 디지털 액터

글\_ 최원석 (자유기고가)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 The Spirits Within, 2001)〉가 개봉되었을 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디지털 액터의 섬세함은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바람에 날리는 주인공의 머리카락과 주름진 피부와 솜털 등 거의 살아있는 사람과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는데, 디지털 액터가 사람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행동이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연기력이 없는 배우들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 흥행이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The Fellowship Of The Ring, 2001)〉에서 골룸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며, 디지털 액터 기술은 다시한번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킹콩(King Kong, 2005)〉에서 디지털 액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그 입지를 확실히 굳히게 되었고, 국내에선 비록 비호감 스타 이기는 하지만 괴물이 여기에 가세하게 된다. 하지만 골룸이나 킹콩, 괴물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액터라고 볼 수는 없다. 〈벤지(Benji, 1974)〉에서 털 복숭이 강아지의 연기가 뛰어나다고 개를 배우라 부르지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괴물은 배우라 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 액터를 탄생시키는 작업이 어려운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기술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 사람은 이를 전에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96% 정확도로 구분해 내며,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의 얼굴 특징을 모두 잡아낼 만큼 날카로운 눈(사실은 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딘가 어색하거나 이상한 얼굴은 평범한 얼굴보다 훨씬 잘 구분한다. 이와 같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잘 구분하는 것은 뇌에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뇌의 이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안면실인증(사물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얼굴만 인식하지 못하는 증세)'이라는 독특한 증세를





## 결국 사이버 세상에서도 기술의 끝은 사람으로 이어져 있다

보인다. 사람이 다른 영장류와 달리 얼굴에 털이 없는 것도 바로 섬세한 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을 만큼 표정은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액터가 조금만 어색한 표정을 지어도 관객들은 당장 그것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갖가지 표정 속에 담겨 있는 특징을 모두 잡아내기 위해 아티스트에게는 뛰어난 관찰력이 필요한 것이다. 뛰어난 연기자라면 감독의 요구에 의해 눈은 울고 있지만 얼굴은 웃고 있는 표정을 쉽게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 액터에게 이러한 연기를 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표정을 매우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초창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괴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물론 표정 연기에 앞서 디지털 액터를 진짜와 같이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작업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머리카락의 중력이나 공기의 저항 등의 다양한 힘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며, 실내와 바깥에 따라 반사되는 광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묘사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물리학적 계산이 필요하다. 사람의 피부는 마네킹이 아니기 때문에 뼈와 근육, 혈관에 따라 그 빛깔이 다르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동원되어야 정확하게 묘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많은 지식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액터의 모습이 진짜 배우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도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액터의 모습이 점점 진짜와 같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밋밋하게 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군중의 경우에는 특징 없는 디지털 액터가 좋겠지만 주연이나 조연을 해야 한다면 개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시트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오버하는 듯이 연기를 하는 것은 다소 과장되게 연기해야 관객들이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바로 디지털 액터에게도 그러한 연기력이 필요한 것이다. 뛰어난 미모가 뛰어난 연기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듯 디지털 액터가 진정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진정한 연기자의 눈이 필요하다. 결국 사이버 세상에서도 기술의 끝은 사람으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TTA